

인원 어 버린



영인 1895

2023. 9. 6.(수)

유튜브 채널(서울예술단)
13:00 ~ 24:00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
18:30 ~ 21:00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대강당
18:30 ~ 21:00

※ 본 행사는 녹화된 공연실황을 유튜브와 대강당 스크린으로 상영하는 행사입니다.

신청기간 2023.8.25.(금) 10:00 ~ 9.5.(화) 18:00

참서인원 유튜브 [인원 제한 없음]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1인2석) [250좌석]

신청방법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누리집(www.gew.kr) 예약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대강당(1인2석) [430좌석]

잃어버린 얼굴 1895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여인, 명성황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묻는다.

1910년 8월 말, 한 노인이 한성의 천진사진관을 방문한다. 그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비 명성황후의 사진을 찾고 있다. 사진관을 지키고 있던 사진사는 아마도 왕비의 사진은 없을 거라고 답한다. 노인과 사진사는 왕비에 대한 서로의 기억을 돌아본다.

어린 시절 한동네에서 자란 휘와 선화는 정혼한 사이. 임오군란 당시 피난 온 왕비의 신분을 모른 채 내뱉은 험담으로 휘는 가족과 고향을 잃게 된다. 휘는 왕실 사진사의 조수가 되어 왕비에 대한 복수를 꿈꾸지만, 궁녀가 된 선화는 왕비의 옆에서 그녀를 이해하고 보듬는다. 한편, 일본인 기자 기구치는 왕비 암살계획을 돕기 위해 휘를 이용해 왕비의 사진을 구하려 애쓴다. 하지만 사진 찍기를 거부해온 왕비의 얼굴은 좀처럼 노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5년, 을미사변의 밤은 비극의 희생양을 향한 거친 발걸음을 내딛는다.



출연진

명성황후 역

차 지 연

고종 역

김 용 한

민영익 역

최 정 수

대원군 역

금 승 훈

김옥균 역

강 상 준

선화 역

김 건 혜

휘 역

신 상 언

진령군 역

고 미 경